



유럽기행

Around Europe

by Oh Jea Young

필자가 이곳 제주도에서 사무소를 개설한 때가 지난 '83년 8월 24일 이었다. 그 당시 제주도지부에서는 동남아지역 건축계 시찰을 위한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을 때였다. 꼭 참여하고 싶은 필자의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으나 생소한 지역에서 개업한 때이라 주변부터 정리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었다.

그 다음에 1월달에 지부회원 13명 (홍진호 사무국장 동행)이 동남아 일대를 돌아보고 무사하게 귀국하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필자는 이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꼭 한번쯤은 해외 나들이를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의 이러한 바람은 현실로 나타났다. 제주지부에서는 유럽지역 건축계 시찰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86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8박 19일동안 지부회원 13명이 유럽지역 여행계획을 확정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나는 난생처음 해외 나들이에 긴장되고 가슴이 부풀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유럽 8개국 17개 도시를 여행한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다.

언어가 다르고 풍속이 다른 남의 나라를 부족한 영어실력과 식성 및 잠자리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장기여행을 보다 보람있고 추억에 남을 유익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2월 20일 오후 5시 40분 김포공항을 출발하였다.

안내원을 포함한 우리일행 15명을 탑승시킨 Air rance 소속 747 점보기의 육중한 기체가 하늘을 나르기 시작했다.

423명을 태우고 무려 20여 시간을 비행하며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 2월 21일 새벽 5시(현지시간) 우리들의 첫번째 방문국인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미라보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르는 매혹과 향수의 도시 파리! 파리는 정녕 무한한 매력과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도시인 듯 하다. 오랜 역사적인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노를담을 비롯해서 피카소 등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들이 창작을 나누며 대화를 즐기던 라르톤드 다방, 룩셈부르크, 공원, 슬본느대학, 빵배웅 성당, 일리리 공원, 니콜레옹 전승 기념탑, 마드레드 성당과 콩고드 광장, 샹젤리제,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에펠탑, 베르사이유 궁, 이방가르드가 설계한 현대건축물의 결정체 뽕뽕두 국립예술문화센터, 프랑스 화가들의 광장이며 낭만이 깃든 몽마르트 언덕과 성심성당,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프랑스에는 건축문화를 비롯한 관광자원이 얼마나 풍부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예술을 비롯한 온갖 서구문명의 발원을 이루는 프랑스는 남쪽으로는 꿈과도 같은 지중해의 해변이 펼쳐 있고 북쪽으로는 영국과 마주한 도버해협이 프랑스의 비옥한 땅을 속속들이 적시고 있다.

프랑스는 옛것과 새로운 것, 가벼운 것과 심오한 것, 이 모든 것을 품안에 지니고 있는 파리의 모습에 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옛 것들 사이로 최첨단을 자랑하는 페제베(T. G. V)가 달리고 초음속 비행기 “콩고트”기가 그 위 하늘을 자랑스럽게 날으는 파리는 뛰어난 아름다움을 연출해 내는 예술행사가 수없이 열리고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격언들이 새삼 실감을 느낀다.

파리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두번째 방문국인 스페인으로 향했다.

2월23일 2시 55분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스페인은 태양의 나라 정열의 나라라고 한다. 3월 중순부터 10월까지의 여름이라 건조하고 가뭄이 계속되며 맑은 하늘과 태양만이 내려 쬐인다. 1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철로 우기이다. 1년간 총 강우량이 700m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는 물의 웅덩이라는 아랍어에서 근원된 것으로 지하수가 풍부하며 7년간 비가오지 않아도 수도물 걱정이 없다고 한다.

투우나 플라멩고 춤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것이다.

스페인 왕궁은 궁실이 1,250개나 되며 대리석으로 건축된 이 궁전은 바닥과 벽에는 1,280개나 되는 양탄자가 장식되어 있고 바탕 그림은 고야가 그렸다는 화려한 양탄자가 잘 보존되고 있었다. 각 방마다 순금으로 만든 금시계며 금과 그리고 3.8ton의 금을 녹여 만든 왕관형 탁, 수십만개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 그리고 구리파에서 아니 전세계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순금으로 만든 산테리아 등은 김탄사가 연발될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스페인의 이튿날 행사는 고도 도레도성, 2000년전에 세워진 이 고도는 1516년부터 지금까지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800년동안 아랍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아랍문명의 영향을 받아 아랍형의 건축양식이 눈에 많이 띄었다.

2월25일 마드리드 공항을 출발 스위스 제네바 공항을 경유하여 세번째 방문국인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였다.

그리스는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며 철학과 수학이 발달하였고 초대 올림픽 경기가 개최된 곳이다. 우리들은 고대문화의 발상지에 와서 2000년전 고대건축양식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

있고 보람된 일임을 느꼈다.

올림픽아 스타디움, 자파온, 제우스 신전, 파르테논신전과 아크로폴리스, 나이키 신전 등 고린도 섬의 고대건축물의 유적들을 돌아보고 그리스 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양국 건축사업무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했고 그리스 건축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다.

그리스에는 약 20,000명의 건축사가 있는데 그 절반이 여자건축사라고 한다. 그리스의 건축허가 절차는 설계착수 전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주위의 역사적인 배경을 검토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건축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아테네의 건축특색은 우선 느끼는 인상이 색채가 전체적으로 회색과 백색으로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안정되고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네번째 방문국인 영원한 문화유산의 도시 로마로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카톨릭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이었다. 이곳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베드로 성당이 우선 시야에 들어온다. 부라민테 라파넬, 시모네티 미켈란젤로 등이 설계한 이 건축물은 140년간에 걸쳐 완성된 건축물로 성당내부 길이가 186.36m 외부 전체길이가 200m가 넘으며 최상단의 높이가 140m, 돔의 직경 43m인 석조 건축물로서 성당 천정의 벽화는 미켈란젤로가 4년간 천정에 매달려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걸작품이 아직도 잘 보관되어 있었다.

중세까지 모든 예술과 정치, 행정, 건축, 학문을 발기시키고 총집하였던 로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전세계를 통치하며 절대군주처럼 도도하고 오만했던 무적의 로마가 야만가.

영화 “퀴바디스”에서 소개된 세계에서 가장 큰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그 일부가 훼손되었음에도 그 웅장한 자태를 버티고 서 있다. 큰 직경이 188m, 작은 직경이 156m 주위가 527m 80개의 흉예문을 갖고 바깥 기둥의 높이가 57m나 되는 타원형 4층 원형경기장은 5만명에서 8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원형 경기장이며 천정은 햇빛 가리개용으로 비단천막까지 칠 수 있는 장치가 그 당시 로마의 건축기술이 얼마나 웅대하고 뛰어



그리스에서 오른쪽이 필자

났는지 탄복할 뿐이다.

네로 황제가 즐겨 찾던 콜로세움, 미켈란젤로와 베르니니의 예술적 정열과 진수가 응축된 산피에트로사원 로마의 얼이 담긴 판데온,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거했던 지하묘지 카타콤베, 1,000명이 한꺼번에 목욕할 수 있는 고대 로마의 목욕탕 카리칼라 욕장, 임마누엘 2세 기념관 네로황제 등 고대 로마 귀족들이 살았던 팔라티노 언덕, 그레고리파과 오드리함번이 열연했던 “로마의 휴일”에서 나왔던 트레비 분수와 진실의 입 등 수많은 유적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격언과 같이 로마를 하루에 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일행은 다시 세계 3대 미항이라 불리우는 니콜리를 둘러보고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고대도시 폼페이를 둘러보고 쉴렌토를 볼 예정이었으나 산사태로 도로가 막혀 서운한 마음으로 숙소인 VILLA PAMPHILI HOTEL로 돌아 왔다.

3월 1일 5번째 방문국 스위스로 향했다. 스위스에서 네덜란드까지는 전세 관광버스로 가게 되어 있었다.

3월2일 전세 관광버스로 해발 2,132m 정상에 오를 필라투스산을 향했다. 국민소득 1만 5천불이 넘는 스위스는 도시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리히에서 약 80km 지점에 있는 필라투스산은 루체른에서 4인승 케이블카로 설경과 기암절벽을 따라 중턱쯤 올라가 현대기술의 대담성을 이용한 공중 케이블카를 타고 험한 암벽을 따라 정상에 오르게 된다. 정상에는

현대식 건물로 된 호텔과 레스토랑, 휴게소 등을 갖춘 3층 건물로 아름답게 세워졌다. 돌아오는 길에는 루젠호수에 둘러 청동오리, 백조 등 수 많은 철새들이 놀고 있는 호수를 관광하고 주리하에 돌아와 한국인 교포가 경영하는 식당 서울집에서 불고기백반으로 저녁식사를 하다보니 고향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친다.

3월 3일 오늘은 스위스 3대 건축설계사무소의 하나인 "슈터슈터"라는 설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종업원이 670명이나 되고 6층 사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6개의 지사를 설치하고 건축설계 용역을 맡아 처리하는 아주 큰 설계사무소였다. 기계설비부에는 한국인 이종진씨가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서 소상하게 현황을 청취할 수 있었다. 우리 일행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준비해간 선물을 전달하고 앞으로 상호 기술협력과 정보교환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곳 설계사무소에서 마련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음 방문국 독일을 향해 버스는 달렸다. 라인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경치와 군데군데 높은 언덕에는 옛 성주들이 살던 고성들이 많이 눈에 띄었으며 라인강의 물결을 가르며 화물선과

유조선들이 수없이 지나간다. 2차대전의 참패로 폐허가 된 독일이 라인강의 기점으로 다시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로 발전한 독일! 단결심이 강하고 근면 검소한 독일민족! 또다시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하이델베르크에서 하루 행사를 마치고 프랑크푸르트에 들어 괴테의 생가와 시가지를 돌아 보았다.

3월 5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 다시 7번째 방문국 네덜란드를 향해 버스는 달렸다. 6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며 독일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가 있었다.

3월 6일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에 도착하여 민속촌을 돌아보았는데 풍차와 네덜란드 원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겨자, 치즈, 나막신을 만드는 수공업과 낙농인들의 생활모습을 볼 수 있었다. 네덜란드의 국립박물관과 바다를 막아 호수를 만든 어촌 마을을 돌아보고 운하를 운항하는 유람선으로 암스텔담 시내를 둘러 보았다.

3월 7일 암스텔담을 출발 헤이그에 도착 이준열사의 묘지에 참배했다. 또한 이곳에는 네덜란드의 행정부가 있고 국제사법 재판소가 있어서인지 외국

망명객이 많은 도시였다. 여기서 다시 항구로 가서 런던을 왕래하는 호화여객선 웨리호를 타고 약 6시간을 항해하며 영국에 도착하였다.

3월 9일 영국에서의 행사는 67만평이나 되는 하이드 공원을 먼저 찾아갔다. 제 1회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곳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공의 동상이 있으며 알버트공이 통치할 때 세계의 4 분지 1을 식민지화하여 대영제국을 이루었다.

버킹검궁을 돌아보고 템즈강변을 따라 영국시계탑 워터루 다리 등을 지나 런던성과 대영박물관을 둘러 보았다. 오후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고 있는 윈저궁을 방문하고 여행의 마지막 밤은 템즈강을 따라 유람선을 타고 템즈강변의 런던 야경을 구경하였다.

3월 9일 아쉬움과 지루한 여행은 끝났다. 새벽 6시 런던공항을 출발 파리, 앙카리지, 동경을 거쳐 조국 서울에 도착하니 지난 몇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조국 서울의 거리 그리고 고층건물을 비롯한 모든 풍물들이 새롭고 아름답게만 보인다.

제5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

제 5 회 대한민국건축대전(1986년도) 작품공모 및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전시내용 및 출품기간

구 분	전 시 기 간	원 서 교 부	작품접수기간	접 수 시 간
초 대 전	86. 11. 25~12. 4	-	1986. 11. 23	10:00~18:00
일반공모전	86. 11. 25~12. 4	86. 6. 5~7. 5	1986. 11. 22	10:00~18:00

- 원서교부처 : 한국건축가협회사무국
- 작품 접수 : 한국현대미술관(동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5-1 덕수궁내
752-7206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동관)

출품자격 및 대상

- 대한민국국민
- 응모작품은 건축 및 도시설계에 관한 창작품(구조·실내디자인·조경·가구 등 건축 도시설계에 관련되는 작

품을 포함)이어야 하며 동일 작품에 대하여 작가명의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작품규격

- 120cm×80cm 패널 4개(단 가로는 240cm를 초과하지 못함), 설계도 및 투시도와 간략한 작품설명서 제출(단 모형은 출품자 임의)

심사결과발표

- 1986년 11월24일 예정

출품원서대 : • 10,000원

기타 상세한 것은 한국건축가협회 사무국(732-4613)에 문의 바람.